

미래 먹거리 ‘체감형 게임’ 육성

전남진흥원,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앞장
기업·일자리 창출 지원...35개 기업 입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오창렬)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감형 게임육성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두각을 보이고 있다.

◇기업 지원 성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해까지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1인 미디어(MCN) 등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실감미디어 기술기반의 차세대 체감형 게임산업을 집중 육성해 ▲산업 생태계 구축 ▲창업 및 성장지원 ▲유통서비스 기반 조성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문을 연 전남글로벌게임센터를 중심으로 기업활동과 마케팅을 집중 지원한 결과, 지난해 22억원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 매출 6억원보다 300% 증가한 것으로 취약한 전남 게임산업 기반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흥원의 지원이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게임기업 증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게임산업 생

태계 조성도 사업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게임 기업은 창업과 전업 기업 발굴, 수도권업체들의 이전 등으로 지난해 35개 기업으로 증가했다. 신규 일자리도 40개 창출해 당초 목표 200%를 초과 달성했다.

지난 1월 ‘전남글로벌게임센터 비즈니스 매칭 데이’를 개최해 전남 게임기업 6개사와 중국 2개기업의 퍼블리셔, 국내외 바이어, 마케터 25개사 등을 한데 모아 도내 체감형 게임기업의 마케팅 지원 및 매출 촉진을 이끌었다.

◇게임문화 저변확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올해 전남 게임산업 생태계 선순환구조 마련을 위해 전남 게임기업 개발 게임의 유통과 지역 내 게임 향유문화 저변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축제 연계 체험공간 활성화, 비즈니스 상담회, 쇼케이스 개최 등을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와 기업의 글로벌 신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진흥원은 올해 초부터 영광군 노을전사관에 게임 기업의 마케팅과 전시·시연 공간인 ‘전남글로벌게임센터 체감



최근 오창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이 지역 게임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대만어뮤즈먼트산업협회 관계자와 상담을 벌이고 있다.

형 게임존’을 구축,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중국 VR 제조사 DPVR, 중국 최대 VR 플랫폼 7663.com, 대만어뮤즈먼트산업협회(TAMA), 아시아 최대 아케이드 게임 전시회 주관사 GTI 등 국내·외 협회, 글로벌 선도기업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남 체감형 게임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글로벌 얼라이언스 구축 등 시장 진출의 토대를 마련했다.

오창렬 원장은 “올해 전남 게임산업 생태계 선순환구조 마련을 위해 유통과

서비스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며 “지역 내 체험공간 활성화,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내수시장 진출과 글로벌 신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 원장은 이어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앞으로도 선도 언론기관인 게임톡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게임에 대한 일부 부정적 인식을 타개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게임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형동 기자

가상현실 콘텐츠 기업 키운다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사업 설명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국내 가상현실(VR) 콘텐츠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총 11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우선 우수한 VR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가상현실콘텐츠제작 지원사업’에 67억원을 지원한다. 사업의 지원 분야는 ▲가상현실 콘텐츠 프리랜터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지원(중형)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지원(소형) 등 3개다.

가상현실 콘텐츠 프리랜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업을 통한 중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획, 제작, 유통 등 전 단계를 원스톱으로 지원해 성공 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 지원 과제는 문화콘텐츠 전 분야에 걸쳐 5개 내외로 1개 과제당 최대 6억8,000만원을 지원한다.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지원(중형)은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등 차세대 기술 기반의 콘텐츠 제작을 돕는다.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게임을 제외한 전 분야에 걸쳐 7개 내외의 과제에 각각 최대 3억 2,000만원을 지원한다.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지원(소형)은 선정된 5개 내외의 과제에 최대 1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지원 범위를

VR 콘텐츠 외에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로 확대하고, 소·중형 과제로 지원 내용을 세분화해 중소기업의 콘텐츠 발굴과 다변화를 꾀했다.

이밖에 뉴콘텐츠센터에 26억원을 지원한다. 뉴콘텐츠센터는 VR을 비롯한 AR, MR, 인공지능(AI) 등 뉴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입주공간, 테스트베드 등 다양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뉴콘텐츠 생태계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맞춤형 수출 컨설팅과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가상현실 콘텐츠 사업화 지원사업과 지역활용형 VR·AR콘텐츠 제작지원사업에도 각각 11억원과 15억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가상현실 콘텐츠 사업화 지원사업에는 뉴콘텐츠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 주요 거점 투자설명회, 국제 테마파크 박람회(IAAPA) 공동관 운영 등이 포함된다.

콘진원은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6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2018 가상현실 콘텐츠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자세한 사항은 콘진원 홈페이지(www.kocc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형동 기자

“카톡으로 비행기표 산다”

항공권 by 카카오 개시

카카오는 항공권 가격 비교 서비스 ‘항공권 바이 카카오(by kakao)’를 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항공권 바이 카카오’는 포털 다음의 기존 항공권 서비스를 전면 업데이트한 것으로, 모바일 다음(m.flights.kakao.com)을 시작으로 조만간 카카오톡과 다음 PC 버전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일정과 목적지를 선택하면 12개 제휴 여행사가 보유한 항공권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카카오 계정으로 예약·결제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항공권 가격 변동 추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기능도 갖

쳤다.

개인 맞춤형 여행지를 추천해주는 ‘어디든’ 서비스는 대략의 일정과 예산, 출발지만 입력하면 조건에 맞는 다양한 목적지의 항공권을 제시해준다. 가령 ‘5월 출발, 체류기간 5일, 여행 예산 100만원’을 설정하면 해당 조건 내의 일본·중국·동남아·미주·유럽별 항공권 정보가 나타나는 식이다.

이처럼 담당 TF장은 “카카오의 모바일 역량을 활용해 간편하고 빠르면서도 저렴한 항공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에너지 융·복합’ KT-한국전력기술 업무협약

KT와 한국전력기술은 21일 서울 광화문KT 사옥에서 ‘최첨단 ICT기반 에너지 융·복합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에너지 융·복합 사업기회 발굴 ▲발전소 에너지관리시스템 개발 ▲스마트발전소 구

현을 위한 기술개발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양사는 열병합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공동 발굴하기로 합의했다. 발전소 에너지관리시스템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유형동 기자

KT, 5G 내년 3월 상용화 통합 플랫폼 구축 목표

KT가 내년 3월 차세대 통신 5G 상용화를 위해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KT는 22일 광화문 KT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세계 최초 5G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운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9년 3월 5G 서비스 상용화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KT의 목표는 전국망에서 모바일 기기로 이용할 수 있는 ‘완벽한 5G’ 서비스다.

네트워크부부장 오성목 사장은 “이동성과 커버리지가 보장돼야 진정한 5G”라며 “클라우드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전국망과 모바일 기기에서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진정한 5G 상용화”라고 설명했다.

KT는 미국 버라이즌이 추진하는 FWA(고정형 초고속 인터넷) 방식의 5G 상용화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5G FWA는 유선망 대신 5G 무선망으로 각 가정에기가급 속도의 초고속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버라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에서 모델들이 KT와 드래곤플라이가 공동 개발한 ‘스페셜포스 VR’의 네트워크 기반가상현실 멀티플레이를 시연하고 있다.

즌은 올해 하반기 FWA 방식의 5G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휴대전화에 적용 가능한 이동형이 아니라는 점에서 진정한 5G로 부를 수 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오 사장은 “FWA는 기존에도 가능한 서비스였기 때문에 FWA 형태로 상용화

하는 건 앞서 갔던 기술을 다시 후퇴시키는 셈”이라며 “진정한 이동성과 서비스, 전국 커버리지가 합쳐진 5G 서비스를 내년 3월에 세계 최초로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5G를 산업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통합 플랫폼’으로 만든다는 게

KT의 구상이다.

KT는 작년 개발한 네트워크 가상화 통합 제어체제인 ‘E2E 오케스트레이터(Orchestrator)’를 활용해 커넥티드카, 5G 팩토리, 드론 등과 같은 서비스를 플랫폼 형태로 자유롭게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유형동 기자

제18회 5.18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

5.18 마라톤대회

※ 식전행사에 참가자와 함께 입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 합니다.

일시 2018년 5월 12일(토요일) 집결 오전 08:00 / 출발 08:50

장소 광주상무시민공원

종목및참가비 5.18km, 5.18km빛코스 10,000원, 10km, 하프, 30km 30,000원

접수기간 ~ 2018년 4월 20일(금) **★현재접수중★**

접수방법 전화, 팩스, www.518run.com, 0518run@hanmail.net

문의 TEL (062) 720-1014, FAX (062) 720-1020

카카오톡 문의 ID : jndnnews

주최 518기념재단 전남매일 **주관** JM 스포츠

후원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518구속부상자회 전라남도지부

광주광역시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 하는 시각장애체험코스 (5.18빛코스) 참가문의 : 062) 415-9529